



## 대중문화 속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선 두 가지

요즘 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큰 걱정거리이지요. 수업시간에 아예 엎드려 잠을 자거나 딴짓을 하는 건 일상이 되었을 만큼 선생님과의 관계는 일그러졌고, 또래끼리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도 우정이나 의리보다는 폭력이나 왕따 같은 말이 먼저 필요합니다.

☞ 박진규(서울여대 연문영성학부 교수)

지난달에는 청소년 드라마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들 통 해서 우리 자녀의 학교생활을 들여다보았는데요. 이번 호에는 청소년의 모습을 그린 대중문화 작품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 합니다. 대중문화는 청소년들의 삶을 예폭하기도, 때론 일방적으로 폄하하기도 하지만, 어른들이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도구가 되기도 하니까요.

대한생 선교단체 IVF 대표 감종호 목사가 이런 말씀을 시는 걸 들었습니다.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역 은 마치 타문화권 사역을 하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그 만큼 기성세대 눈으로는 젊은이들의 생각이나 행동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현장에서 오랜 시간 젊은이들과 함께 생활하며 인은 교훈은, 타문화권 중추 젊은이들을 그들 시선으로 바라보려고 애쓰는 것처럼 젊은 세대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품으 려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요즘 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큰 걱정거리이지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과 행동으로 어 른들을 당황하게 하기 일쑤입니다. 아이들! 대부분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수업시간에 아예 엎드려 잠을 자거나 딴짓을 하는 건 일상이 되었을 만큼 선생 님과의 관계는 일그러졌고, 또래끼리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도 우정이나 의리보다는 폭 력이나 왕따 같은 말이 먼저 필요합니다.

몇 달 전 한 신문 1면에 “요즘 중학교의 현실”이라는 제목과 함께 사진 하나가 실렸습니다. 중학 교 교정에서 남녀 학생이 부둥켜안고 입을 맞추는 모습이었습니다. 3면에는 학교폭력 문제를 심 층 분석하면서 또 하나의 사진을 게재했는데, 교실 창밖으로 담배를 피우는 학생의 반쯤 가려진 얼굴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이런 학교... 점심시간 교실에서 담배 피우는 학생”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사진들이었습니다. 아무리 풍교육이 붕괴하였다지만 학교에서 버젓 이 그런 일탈을 하다니요.

그런데 이 사진들은 청소년을 바라보는 기성세대 어른들의 시선과 닮았습니다. 학교를, 그속의 아 이들을 아주 멀리서 망원렌즈를 통해 바라봅니다. 거기서 보이는 단편적인 장면들만 보고는 고개 를 절레절레 가로졌습니다. 정작 이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고민은 무엇인지, 이런 일탈적 인 행동이 자신들에게는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별로 알고도 하지도, 물어보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하면 아예 소개할 두 개의 대중문화 작품은 다른 시선으로 청소년을 바라봅니다. 소위 ‘문제아’라 불릴만한 아이들을 다루고 있지만, 그 문제의 결과만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미모하고 복잡한 심리, 또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과정과 상황을 그려줍니다. 타종족으로 바라봐 야 할 만큼 진심 어린 이해가 필요한 청소년에 대하여 많은 생각거리를 던져줍니다.



먼저 2011년에 개봉했던 영화 <파수꾼>입니다. 독립영화였지만 관객 수도 꽤 되었고 특히 작품성 에 대한 호평이 많았습니다. 국제영화제에서 상을 타기도 했지요. 영화 <건축학개론>과 TV 드라 마 <패션왕>에 나왔던 배우 이재훈이 고등학생으로 출연해 좋은 연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영화는 고등학생 친구 세 명의 이야기입니다. 기태는 학교의 이른바 “짱”으로, 중학교 때부터 친하던 동윤, 같은 반 희준, 이렇게 셋이서 항상 붙어 다니는 단짝입니다. 어머니가 없는 기태는 언제나 밖으로만 또는 아버지의 무관심으로 친구들에게까지 가족 얘기는 꺼내지도 않습니다. 의 리파인 동윤이가 기태와 희준을 연결해 주었고, 이들은 동윤의 여자친구 세정의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지냅니다.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의 희준이는 우연히 자기가 좋아하는 여학생이 기태에 게 고백하는 걸 본 후 후다시는 기태를 전처럼 대하지 못합니다. 기태는 이유도 모른 채 자기를 멀리 하는 희준이를 참지 못하고 그만 폭력을 행사하고 말지요. 이후 기태의 ‘일진’ 페거리에게 괴롭힘 을 당하던 희준은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버림으로써 관계를 단절해 버립니다.

기태는 희준이와 화해하고 마음을 돌리려 애쓰지만, 오해로 동윤이와의 관계마저 틀어지면서 몹시 괴로워합니다. 언제나 든든한 버팀목이라고 여긴 동윤에게까지 자신을 부정하는 말을 들게

된 기태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을 하게 되지요. 기태의 아버지는 뒤늦게 아들의 친구들을 찾아다니며 아들 삶의 퍼즐을 하나하나 맞춰갑니다.

학교폭력과 양파, 자살에 이르기까지 청소년들의 삶을 묘사하는 말들이 점점 끊이지는 요즘, 이 영화는 그런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아이들도 그저 우리 주변의 평범한 아이들이일 뿐이라고 말을 합니다. 누구에게나 있을 법한 사소한 오해, 그것이 만들어낸 간극을 때우는 데 익숙지 못한 아이들의 모습이 현실감 있게 다가옵니다.

이 영화는 또 청소년 프래가리의 소통방식에 대해서 생각하게 해 줍니다. 스스로 속마음을 알고 그 것을 언어로 표현하여 상대방에게 드러내는데 미숙한 아이들은 “너를 친구로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어”, “질못된 것은 없어. 그냥 너만 없으면 돼”라는 말을 내뱉으며 상처를 주고받지요. 청소년들의 폭력과 일말이 매우 거칠게 그려지지만, 그 주인공들의 모습도 낯설거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들 사이에 관계를 맺고,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는 아이들만의 방식과 함께 그 미숙함이 가져올 수 있는 엄청난 결과에 대해서도 공감할 수 있게 해 줍니다.

무엇보다도 뇌리에 남는 건, 언제나 절박하게 관심과 인정을 찾는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서로 다른 모습의 기태와 동윤, 희준, 그리고 일진 아이들까지 그들의 공통점은 모두 애정에 목말라 있다는 것입니다. 친구에게서, 이성에게서, 가족에게서 그것을 찾으려 하지만 기절당했을 때 겪게 되는 좌절과 방황이 이 영화 속 청소년들의 공통된 어픔입니다.



또 하나의 작품은 웹툰, 즉 인터넷에서 연재되는 만화 <페션왕>입니다. “기인왕”이라는 필명의 젊은 작가가 작년부터 연재한 웹툰인데, 매주 새로운 에피소드가 업데이트되면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지금은 좀 시들해졌지만 언제나 재기 발랄하고 예상치 못한 아이디어와 표현방식으로 화제를 끌고 다녔습니다.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는 대단했지요.

대략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17살 우기명은 공부밖에 모르던 조용한 학생입니다. 어느 학교에서 나 혼히 볼 수 있는 아주 평범한 아이였지요. 그러던 기태가 같은 반 여학생 혜진의 마음을 사

기 위해 큰 번신을 하게 됩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신분을 상징한다는 “노스페이스” 패딩을 인터넷으로 구입한 것을 시작으로, 눈이 안 보일 정도로 앞머리를 내려 자른 일명 “시각포기컷”과 극단적인 스키니 스타일로 수선한 교복패션으로 학생들이 마련한 “간지배틀”에서 최종 우승하게 됩니다. 이후 기태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지요.

사실 스토리 자체가 얼마나 현실적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 그리는 학교와 학생들의 모습에 청소년들이 열광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자신들의 감정과 속내를 그 어떤 드러내거나 영화보다도 잘 표현해준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페션왕>에서 그려지는 청소년들은 어른들이 자신들에게 부여한 서열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른들은 공부와 석차, 미래를 결정할 “스펙”이 학생들 사이에서의 질서를 만들 것이라고 짐작하고 또 그렇게 대접합니다. 자네의 친구들을 향해 “개는 공부 잘 하니?”라고 묻는 건 그 서열을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되는 아이들이 겪을 불행을 염려하기도 하지만, 그런 질서와 서열이 불가피하다고, 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학교 학생들의 생활에서 이런 질서는 그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공부나 석차는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저 “짜잘”한 애들이나 신경 쓰고 목매는 것일 뿐이지요. 이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질서 속에서 중요한 기준은 다름 아닌 패션입니다. 얼마나 “간지”하는지에 따라 신분이 달라지고 서열이 바뀌어집니다. 여기서 어른들의 질서인 성적에서 나오자였던 아이들이 더 앞서나가기로 합니다. 오히려 기태가처럼 신분상승을 위해 공부를 포기하면서까지 여기에 편입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판타지의 성격이 강한 웹툰으로 청소년의 현실을 말하는 건 무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응하고 환호하는 청소년들에게서 그들의 마음을 읽을 수는 있습니다. 기성세대가 자신들의 삶에 중요하다고 규정된 것들에 그저 순응하지 않습니다. 공부처럼 잘 외워지는 것보다는 더 명백하고 더 스스로에게 의미 있는 것으로 대신하고 싶어 합니다. 여기서 패션, 외모라는 비본질적인 것이 어떻게 의미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는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존 사회가 강요하는 것에 대해 청소년들 스스로 내놓는 반작용이라는 점이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질서 속에서도 여전히 철저한 위계와 그에 따른 성패가 어른들의 그것을 꼭 빼앗았다는 게 시 글프기는 합니다.

청소년을 이해하고 그들 세대와 공감하는 건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들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회는 어떠한지, 그들 눈에 비친 어른들의 세상은 어떠한지, 스스로 만들어가는 작은 사회는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하고 물어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가정의 자녀교육에서도, 학교의 청소년 사역에서도, 사회의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와 선택에서도 이런 시선을 가지려고 애쓰는 건 다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 우리의 노력에 청소년을 그리는 대중문화는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박단근 서울여자대학교 인문학사학부 교수,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플로리다대학교에서 커뮤니케이션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전공분야는 미디어와 종교·도시, 종교와 미디어라는 두 개의 개별 영역이 서로 교차하는 다양한 지점에 관심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